

결국 '발파금지 가처분신청'

삼화사-쌍용양회 '법정공방'

"삼층석탑·노사나불철조좌상 훼손위기"

1천여년 전 조성된 신라시대의 탑과 불상이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강원도 동해시 삼화사(주지 원행)의 삼층석탑(보물 제1277호)과 노사나불철조좌상(보물 제1292호)이 1.4km 떨어진 (주)쌍용양회(대표 명호근) 동해공장의 채석장에서 발생한 발파 진동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원행 스님은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대 기술연구소가 삼화사 일대에서 계속된 '발파 진동 및 폭음'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발파 소음은 문화재보호법 허용기준치의 184%를 훨씬 초과한 뿐 아니라 일반 거주지의 허용치도 초과했다 밝혔다.

이에 따라 원행 스님은 "쌍용양회측이 삼화사 인근 지역에서 허용 기준치를 넘는 무리한 발파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발파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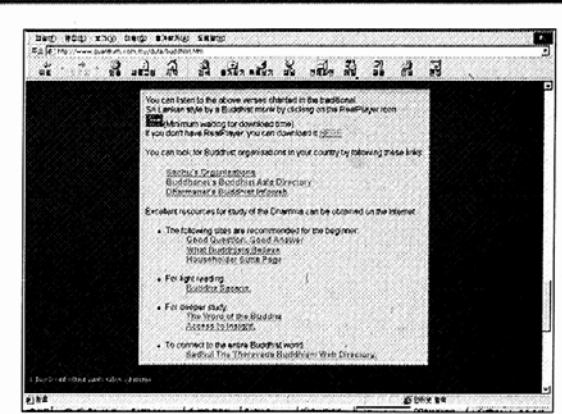
삼화사 주변 지역은 국내 최대 석회석 매장 지대로, (주)쌍용양회는 60년대 이곳에 동해공장을 설립하고 석회석을 채취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삼화사는 77년 원래의 사할 터를 내어주고 지금의 자리로 터를 옮기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97년 사할 전각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를 실시할 만큼 현 위치 역시 발파 진동과 소음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 새로 지은 전각 역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3월말 삼화사의 전각과 문화재를 살핀 김동현(문화재위원) 박사는 "철물 좌상을 모신 적광전 대불보와 천장들 사이가 벌어지고 비로전 후면 벽이 균열 현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진동이 계속될 경우 삼층석탑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측은 "97·99년 삼화사에 대한 쌍용엔지니어링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진단 결과 전각의 훼손은 발파와 무관하며, 지반 다짐 부족과 건조 안된 목재의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쌍용양회측에 따르면 97년 삼화사측에 4억여 원을 보시하고, 발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현재 삼화사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발파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재정신청이 진행중이어서 발파와 문화재 보호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했다"고 말하면서도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삼화사 보물과 전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자가 된다는 것

서양인 초발심-귀의-수행 '상세히' 팔리어 배우고 명상음악 들을 수도

동양과 다른 문화와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의 귀의와 수행은 어떤 모습일까. 인터넷에서 중국계 미국인 로버트 유반의 '불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유반은 ▲'스스로 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놓고 불자의 첫 길을 '귀의'로 설명하고, 또 (아함경)에서 우팔라가 부처님에게 '불자의 의미'에 대해 물고, 올바른 불자상을 세운다는 내용을 영역한 글을 실고 있다. 또 서양인의 초발심과 불·법·승에 귀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사성제와 팔정도를 불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다. 또 ▲'공부하기'라는 메뉴도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명한 질문과 대답' '불자의 믿음이라는 것' '재가불자를 위한 경전 강독' 등 초심자의 신심을 다지는 글들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내면으로' 등 기성 불자들에게 유익한 글도 추천하고 있으며, 명상 음악을 들 수 있는 메뉴도 개설해 놓았다. ▲'음악' 메뉴에서는 모두 20여곡이 소개되는데, 불교음악에 관심있는 불자 네티즌들이 방편해 볼 만하다. 또 ▲'법구경' 원문 강독을 토대로 팔리어의 어휘, 문법, 어구 등을 익힐 수 있다. ▲'화두' 메뉴에는 중국의 14세기 임제종 스님들의 대중적인 화두였던 '황소가 외양간을 듣지다'를 비롯 10여개 화두를 불자 네티즌에게 띄워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관촉사 은진미륵 고려미술 걸작"

조각가 최종대 교수 분석 "선과 비례 능숙" '세련미 없다' 기존평 반론

"고려시대 지방 불교미술은 중앙과 비교해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현대 조각가인 최중대 서울대 명예교수가 미술 일간지 <아트> 4월호에서 "은진미륵을 다시 보자"를 발표하고, 충남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8호·일명 은진미륵)에 대해 "규모는 거대하지만 세련미가 없다"는 기존의 평가에 반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보물 제218호 석조미륵보살입상. 최 교수는 또 "고려시대의 대형 석불인 경기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충남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독립선언'

5월13일 새학회 창립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가 소속 학회에서 독립해 새로운 학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정영근(서울산업대) 교수를 비롯해 불교분과 소속 교수 17명은 13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모임을 갖고, 5월 13일 새로운 학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종교학회 내에서는 폭넓은 불교학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불교분과 소속 교수들의 판단에 따른 것.

불교분과는 98년 5월 당시 학회장이었던 금강대(서울대) 교수의 제안에 따라 결성돼, 방학을 제외한 매달 '월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그 역할을 키워왔다. 그러나 최근 불교분과 소속 교수·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엮은 <불교학 연구 방법론 찾기>

교학 연구)의 발간·배부 과정에서 한국종교학회와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불교분과 운영위원들은 8일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학회 창립에 들어갔다. 前 불교분과 위원장 해주(동국대 교수) 스님은 3월 31일 사표를 제출하고, 동료교수들의 학회 창립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준비위원장 정영근 교수는 "동료 교수와 학자들은 새 틀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학회는 기존 불교분과의 주제와 연구 내용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불교를 연구하는 학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한국 불교학회와의 차별성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 주제와 소속 학원의 중복을 피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불교학 연구 방법론 찾기

성철선사상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새로운 세기에 알맞는 '불교학 연구 방법론'을 찾기 위한 '백련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2001년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번 첫회에는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미방사와 불교의 비교해석학 연구'를 발표하고, 고영섭(동국대 강사) 씨가 토론에 나선다.

'CD롬 국역·원전 고려사'

서울시스템과 동야대학교가 공동으로 고려사 CD롬에 담은 'CD롬 국역·원전 고려사'를 발간했다. 65년부터 73년까지 동야대가 전 11권으로 발간한 <역주 고려사>를 저본으로 제작된 'CD롬 국역·원전 고려사'는 왕대별 검색·색인 검색·자언어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02)722-0720

경북 청송의 관음기도 영험도량 샘재 영천암(靈泉庵)에서 불자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귀의심보해움고 소담은 지난 1998년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된후 새로이 조립식으로 임시법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 현재도 부처님 좌대를 비롯해 후불탱화와 좌우보처 보살님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불자님께서 오신날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영천암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큰코나 도움이 되겠사오니 부디 도와 주시기를 7월달 삼천배기도를 자상으로 드려서 모신 우리 영천암 부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과 턱이 부러져서 늘 여러 불자님께 염려를 많이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하오니 앞으로 반드시 사회사업을 해서 불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공숙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이 불사를 성취하여 저 수미산 같은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고재법회를 꼭 꼭 꼭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이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제가 살아 있더라도 어찌 살아 있다고 하겠사오며 불사를 성취한다면 저는 죽어도 신 것과 조공도 다들 없었사오며 저 사해바다 같은 한을 풀도록 부디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시길. 그리고 또 영천암에 도사실을 만들고저 하니 불자님 가정에 다 읽으신 불서와 법문 카세트 테이프, 법문 비디오 테이프, 불교관련CD가 있으신 분께서는 영천암으로 기증을 해 주시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사오니 저 혼자 힘으로 도사실을 열기가 어려우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등불을 밝히는 분께는 일내내 기도 축원에 드립니다. * 탁발 다니는 관계로 명일 내사시(來寺時) 미리 전화 연락 바랍니다. * 등불공양 올리실분은 가족사항과 전화번호를 꼭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사랑리 548-3번지 샘재 영천암(靈泉庵) 전화문의(팩스겸용): (0575) 873-2724 휴대: (016) 521-2724 주지 박승만 합장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농협: 711089-51-056599 ▶ 예금주: 박명희 우체국: 700419-0136013 영천암 오시는 길안내도

이리랑의 고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일반적으로 쓰는 인진쑥이 아니라 자연산 高養山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연에서 겨울에도 피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한다. 구성북지원 임형스님이 이리랑의 고향 강원도 정선 고양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高養山)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연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 달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몸과 마음으로 건강·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60포 4박스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중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임과 불저방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향버섯, 기간지전식·용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순수의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결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복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임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들 좋은 곳에서 황보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 주문 전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ook.co.kr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5기 佛敎儀式(범음·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아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쇠술,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6개월) 요장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신행과정(6개월)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2000년 5월 7일까지 ◆ 개강일시: 2000년 5월 29일 오후 5시정각 ◆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원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